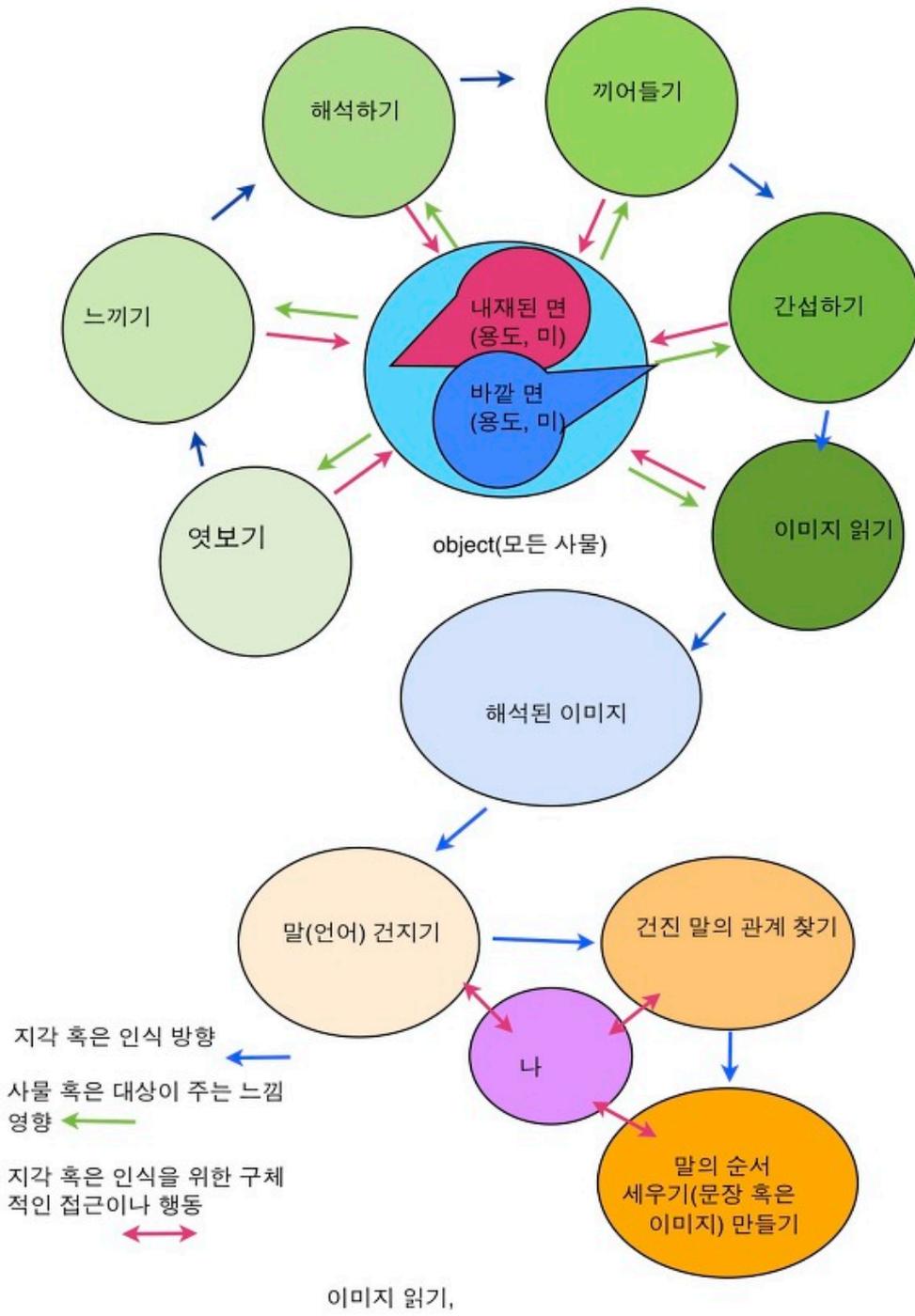




후기 구조주의적으로 바라본 이미지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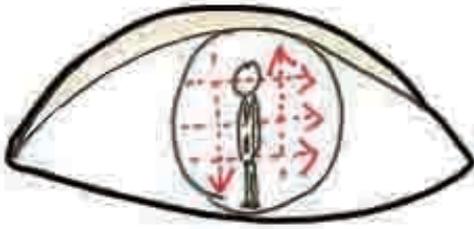


지각 혹은 인식 작용, 사물을 보거나 사회 현상을 보고 그것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작용
 모든 지각 작용들은 시간 혹은 지속으로 부터 가능해 진다. 여기서 지속이라는 말은 차이화를 시키는 차이-를 말한다.
 '어떠한 세계나 사물들도 모두 차이의 흐름의 현실화 또는 구체화 된 것이다. 세계와 사물들은 이런 차이의 상이한 지각작용들의 교차와 접속으로부터 구성된다.'
 '우리에게 지각작용과 잠재적 차이의 본질을 제공해 주는 것은 예술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가 시간의 현시를 통하는 것이다. 이때 시간은 단순히 한 행위와 다른 행위 사이의 연결이 아니라(현실화된 시간),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 전체를 지각하도록 해주는 차이화하는 시간이다.'



동서양을 통합한 새로운 눈,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는가?

다중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은 엿보기 능력, 눈치 살피기
본질을 읽기-->인간을 읽기--->욕망을 읽기---> 이런 방법을 익히기 전에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고 이해하기----->타인의 욕망을



이해하면서 내 욕망을 펼치기

인간의 역사를 욕망이란 화두로 대입해 보면
19세기까지 인간의 역사와 사회를 보면

신의 욕망의 소모품과 도구로써 인간의 시대
특정한 한 사람(왕)을 위한 욕망구현의 도구로써 소모품으로서의 인간의 시대
일정한 집단(왕과 귀족, 특권층, 엘리트들)의 욕망이 드러난 시대.
욕망에 대한 이해.. 욕망을 감추기---욕망을 억제하기
직관을 위한 이미지 읽기

욕망_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서 발생----->결핍에서 발생한 욕구로 드러난 욕망----->
욕망이 발생한 또다른 차원의 욕망
인간의 몸은 이 욕망의 주체로 욕망을 발현하는 도구와 표현체로 이해한다.

이미지읽기는 생존의 도구이자 성공의 도구다.
생존의 도구,

동서양을 통합한 새로운 눈---보통사람들은 엿보기
이 눈은 다중구조와 지역을 초월해 볼 수있는 결국은 눈으로 날개달린 눈이다.
이 날개달린 눈을 움직이는 건인력과 몸통은 욕망을 이해하고 욕망을 읽는 지식체계로
만들어진 기관에 달린 눈이다.



인간은 욕망 앞에선 평등하고

욕망 앞에선 동일하다.

이같은 인간을 욕망의 주체로 시작해 인간을 둘러싸고 발전한 사회를 이 욕망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한다.

즉 관습과 도덕과 법률의 발생과 사회의 발전도

이 욕망을 관리하고 억제하고 혹은 반대로 발현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인류문화구조를 만든 것으로

예를들어 적당히 타협해서 함께 드러내는 것이 <미풍양속>이란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도덕과 법률구조>로 나타난 것이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 <종교와 예술문화구조>인 것이다.

신자연주의는

기존 자연주의가 인간이 만든 문명과 사회제도. 이성적 모든 체계를 제외하고 산과 숲 등 자연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론인 것에 반해

신자연주의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에서 발생해 만들어진 현존의 것을 모두 자연 그 자체로 보고 받아들이는 사상이다.